

## 손정희 개인전 '판도라'

Jung Hee Sohn 'Pandora'



데뷔탕트: 7대 죄악, 2015, 도자, 양모,  
35 x 28 x 85(h)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손정희 '판도라'

전시기간 : 2015년 12월 4일(금) - 12월 30일(수)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약 30여 점

### 담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02-720-1524~6

###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 20151204-20151230 손정희 展

### 1. 전시개요

학교재갤러리에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손정희 개인전 '판도라'를 개최한다. 손정희는 미국 버나드칼리지 예술사 학사, 홍익대학교대학원 도예 유리과 석사 과정을 거쳤다. 2008년 첫 개인전 이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조각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작가 개인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 제목은 <판도라>다.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자 인류 재앙을 가져온 인물로 알려졌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판도라처럼 세상이 원죄의 주범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고자 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던져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비판하기보다 포용하기로 한 것이다.

작가의 작업 과정은 많은 공력을 요한다. 흙으로 역동적인 인체형상을 만든 다음, 유약을 바르고 이를 가마에 최소 세 차례 이상 굽는 힘든 과정을 거친다. 때로는 도자기 조각 위에 형겅, 실타래, 깃털 등의 소재를 곁들여 보다 풍부한 질감을 살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이렇듯 국내 여타 작가들이 거의 시도하지 않는 색다른 도예 조각에 도전하는 그의 작품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전시주제

### '판도라'를 통해 느끼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

이번 전시 제목은 헤시오드가 <신통기>와 <노동의 나날><sup>1</sup>에 서술한 그리스 신화 <판도라>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신들을 총동원해 만든 인류 최초의 여자다. 제우스가 이처럼 공들여 판도라라는 여인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제우스가 인간에게 금지한 불을 사용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등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벌이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과 질병, 고통과 더불어 희망이 들어있는 상자를 전했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는 뚜껑을 열게 되고, 그 순간 상자 속에 담겨 있던 나쁜 것들이 인간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에 깜짝 놀란 판도라는 급히 뚜껑을 닫았으나 남은 것은 오로지 향아리 바닥에 깔렸던 희망뿐이었다. 평온했던 인류는 재앙에 휩싸였고 판도라는 원죄의 주범이 되었다.

작가 손정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상이 원죄의 주범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판도라와 같은 처지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고자 했다. 연민이라는 이타적 감정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랑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로 인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한 것이 사랑의 세계다.<sup>2</sup> 나의 '없음'과 너의 '없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인간 사이에는 사랑이 생겨난다. 없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으므로, 나는 너를 떠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손정희는 연민을 통해 판도라 상자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 즉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백설공주'에서 시작한 손정희의 개인적 서사의 세계

손정희는 첫 개인전에서 전래동화를 도예 작품으로 풀어낸 작업 10여 점을 선보였다. 신데렐라를 비롯해 인어공주, 빨간 두건 소녀 등 동화 속 주인공을 살짝 비틀어 보기 한 인물 조각이었다.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도예 작품을 내보였다. 이번 전시는 이 전시 이후 4년 만의 전시다.

손정희 작업의 주제는 일상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백설공주' 등의 동화를 읽어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결말을 비틀고 풍자하여 작품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작가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 감동 또는 재미를 준다는 점이 흥미로워 동화와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인 틀에 짜인 이야기들의 다양한 재해석 가능성이 매력적이었다.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 변주해내며 인간의 다양한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손정희는 이처럼 동화와 신화에서 찾은 다양한 주제를 오늘의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입시켜 현실

1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 문학의 근원으로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노동과 나날>이 있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세계의 기원, 신들의 왕과 인간 시대의 변천, 인간이 겪는 불행과 제물 의식의 기원을 설명하였다.

2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그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되, 그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원인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믿는 경우, 그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주목 해야 할 점은 이 발언이 비판적이기보다 포용적이라는 것이다. 좋고 싫고를 뛰어넘어 현상의 원인을 감사 안는 제삼자의 깊이 있는 시각은 따듯하다.

### 공력과 집중력을 통해 펼쳐는 도예 조각의 신세계

손정희의 작품은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발상과 이를 입체로 빚어낸 표현력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다양한 형태로 기이한 분위기를 뽐내는 그의 작업은 도예 조각의 신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손정희의 작업과정은 많은 공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흙으로 역동적인 인체형상을 만든 다음, 유약을 바르고 최소 세 차례 굽는 과정을 거친다. 불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해 다섯 번 이상 구울 때도 있다. 그 결과 손정희의 작품은 한결 탄탄한 밀도와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때로 도자기 조각 위에 형검, 실타래, 깃털 등의 소재를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더욱 풍부한 질감을 살려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공간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음악과 조명을 결합하여 감각적 효과를 높인다.

### 3. 대표 작품



판도라, 2015, 도자, 깃털,  
263(h)cm 가변설치

갤러리 제일 안쪽 방의 어두운 장막을 걷고 전시장에 들어서면 온통 세라믹으로 제작한 나방 세상이다. 그 사이에 거대한 크기로 웅장함을 뽐내는 여인이 서있다. 고대 신화의 판도라 이야기를 한 점의 대형 공간설치작업으로 완성한 것이다.

손정희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자 인류 재앙을 가져온 인물인 판도라를 그만의 해석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원죄의 주범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아름답게 빚어낸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험에 들었던 존재를 비판하기보다 포용했다.

손정희는 현대판 판도라를 위해 흙을 빚어 신체를 4, 5회 이상 굽고 또 구웠다. 유약도 수없이 칠했다. 얼굴과 목 부분의 거칠고 부드러운 표면은 그 차이를 낼 수 있는 도예의 매력을 보여준다. 또한, 각도에 따라 여러 빛깔을 비추는 검정 깃털은 팔색조같이 매력적이었다는 판도라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데뷔탕트: 7대 죄악, 2015, 도자, 양모,  
 35 x 28 x 85(h)cm

'데뷔탕트: 7대 죄악' 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손정희는 성경에 나오는 7대 죄악 분노, 폭식, 오만, 탐욕, 색욕, 질투, 나태를 의인화했다. 감정을 꾸며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불만에 가득 차 무언가 못 마땅해하는 표정에서는 제목 '질투'가 쉽게 연상된다.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록 머리 카락과 화려한 줄무늬 타이즈는 아래 위로 인물의 표정을 감싼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분위기가 환기된다.

#### 4. 전시서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윤진섭(미술평론가/호남대 교수)

손정희는 도조(陶彫)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피카소가 "상상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가 뿜어내는, 얼핏 저비현실적이며 몽환적으로 보이는 상상의 세계는 흠으로 빚어 구워 내는 순간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 그것이 예술가의 힘이자 예술의 권능이다. 예술가는 수면 위를 박차고 오르는 제비의 날렵한 몸짓처럼, 상상의 세계에서 거침없이 산다. 현실적인 여러 제약과 선입견은 예술가에게는 상상력의 발휘를 저해하는 독소에 다름 아니다. 작가 손정희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투사에 비견될 수 있으며, 그가 흠으로 빚어내는 저 일견 그로테스크해 보이는 형상들은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굳이 신 중심의 기독교 사회에서 전통적 미의식과 싸운, 그래서 초현실적 지평을 연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손정희가 보여주는 저 개인적 서사(narrative)의 세계는 의식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손정희 작업의 테마는 일상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백설 공주' 등의 동화를 읽어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결말을 비틀고 풍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작업의 컨셉트로 자리 잡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의 다양한 소스들을 동서고금에서 찾게 되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다시 작가적 상상력의 개입을 거쳐 변형되고, 마침내 '자기화(自己化)'의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 형상의 사티로스처럼, 상체는 인간, 하체는 짐승의 형태를 띤다. 손정희는 사티로스의 전설을 형상화한 중세 이후의 수많은 고전들처럼 알레고리를 주무기로 현실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나무꾼과 선녀', '신데렐라', '해님 달님', '라퐁젤', '천일야화(Scheherazade)' 등등의 이야기들은 종종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혹은 비틀기의 대상이 된다. 그의 작품은 실로 수많은 알레고리들의 다발이다. 손정

희는 억압된 현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탈출과 비상의 이미지를 날개와 거미줄로 상징화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레고리적 장치들은 반인반수의 꼬리와 새의 화려한 깃털로 나타난다. 여기서 손정희의 작업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일련의 사회 현상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비롯하여 탐욕, 이중인격, 성도착, 남근 숭배 등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몸 담론이 그의 작업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현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성형수술의 유행 현상과 관련이 깊다. 미를 향한 여자들의 뜨거운 갈망이 수많은 인조 성형미인을 낳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를 통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거침없는 풍자와 알레고리를 통해 손정희는 사회와 역사를 비판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형태는 빨간 사과를 등 뒤에 감춘 백설공주와 이를 바라보는 역대 대통령들의 조상(彫像)에서 극대화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는 자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현실에 대한 우의(寓意)라는 점에서 특 쓰는 듯한 풍자가 담겨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조상들이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캐리커처 풍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손정희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정조(情調)는 연민과 해학, 기다림(願望), 비상 등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이디퍼스 왕'의 배면에 흐르는 정서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다. 소포클레스는 그것을 자신의 추악한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안 이디퍼스 왕이 자신의 눈을 후벼 파는 그로테스크한 광경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극은 비극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답다. 손정희 역시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넘어 아름다운 인간의 감정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5. 작가약력

1974 워싱턴 D.C. 출생  
1993-97 뉴욕 버나드 칼리지 미술사 학사 졸업  
2007-10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 유리과 석사 졸업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 개인전

2011 어드저스트먼트, 세줄 갤러리, 서울  
2008 프렉추얼드 페리테일즈, 갤러리 케이, 서울

## 그룹전

2015 용인 마북동 시대 20 - 여성, 그 다름과 힘 20, 한국미술관, 경기도

- 2014 브로큰 샵,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별이되다, 한국미술관, 경기도
- 2013 세라믹스 에뉴얼 오브 어메리카, 시빅 센터,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09 ( ) 4, 세줄 갤러리, 서울  
제8회 퍼니 퍼니, 세줄 갤러리, 서울  
이츠 레드, 갤러리 이앙, 서울